
'22년 4차 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록

2022. 12.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2022년 제4차 「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22. 12. 20.(화) 10:00~12:10
- ◆ 장 소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회의실
- ◆ 참석위원 : 18명
 - 임규건 위원장, 권순범 위원, 김규호 위원, 김병준 위원, 김승주 위원, 김태진 위원, 박석 위원, 신희철 위원, 오영현 위원, 이경순 위원, 이정훈 위원, 이지은 위원, 인호 위원, 장병탁 위원, 조영임 위원, 이해경 디지털정책관, 이수연 복지기획관,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 ※ 배석 : 디지털수석, 디지털정책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공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소장,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장, 서울디지털재단 혁신사업본부장, 디지털정책기획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주무관 등 15명
- ◆ 진행순서
 - 디지털정책관 및 디지털재단 주요 성과 보고
 - 보고 안건에 대한 자문 및 토론
- ◆ 상정안건
 - 디지털정책관 및 디지털재단 주요 성과 보고
- ◆ 회의결과 : 붙임 참조

□ 위원 발언 내용

〈간사〉

- 진행순서 소개
- 참석위원 및 내부 참석자 소개

〈서울시장〉

- 인사말씀(영상)

〈위원장〉

- 인사말씀
- 공개 회의록 열람·서명 위원(오영현, 이경순 위원) 선출
-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안건 일괄 보고 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음

〈디지털정책담당관〉

- 디지털정책관 주요 성과 보고 (4건)
 - 〔1〕 바르셀로나 SCEWC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드 최고도시상 수상
 - 〔2〕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 오픈
 - 〔3〕 '22년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추진
 - 〔4〕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성화

〈정보시스템담당관〉

- 정보시스템담당관 주요 성과 보고 (1건)
 - 〔1〕 대시민 챗봇 '서울톡' 서비스 개선 및 직원용 업무 챗봇(서우리 주무관) 오픈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요 성과 보고 (3건)
 - 〔1〕 공공와이파이 기반 푸시알림 서비스
 - 〔2〕 공공와이파이 확충(과기부 디지털뉴딜)
 - 〔3〕 AI CCTV 기반 사회적약자 실종예방시스템 구축

〈데이터센터소장〉

- 데이터센터 주요 성과 보고 (1건)
 - 〔1〕 서울시 데이터센터 재난대응 종합계획 수립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장〉

- 서울기록원 주요 성과 보고 (2건)
 - 〔1〕 시정 중요기록의 통합 보존 및 기록정보서비스 강화
 - 〔2〕 시민 기록문화 확산 프로그램 내실화

〈서울디지털재단 혁신사업본부장〉

- 서울디지털재단 주요 성과 보고 (4건)
 - 〔1〕 서울시 AI 기반 서비스 개발
 - 〔2〕 메타버스 서울 시티즌 문화 조성
 - 〔3〕 서울시 디지털 역량 강화
 - 〔4〕 스마트도시 솔루션·기업 해외 진출 지원

〈위원장〉

- 서울시 디지털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에서 한 해 동안 여러 성과가 있었음. 보고받은 안전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음.

〈○○○ 위원〉

- 메타버스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무엇이 좋은지,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직 해본 사람이 없음. 기업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로 경제적인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공공에서 시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 처음 시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고, 성공하기까지 몇 년동안 겪게 될 시행착오들을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하지 말고 민간 쪽에 적극적으로 공유해주면 좋을 것임.
- 카카오 장애로 인하여 국내 많은 기업과 유관기관들이 고생했고, 시에서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데이터센터에서 Tier III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Tier III가 되려면 요건 중의 하나로 메인센터하고 DR센터 사이의 거리, 물리적인 거리가 500마일 정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500마일 정도 되는 곳은 없음. 그러므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DR 센터로 사용하고, 새로 구성하는 곳을 Tier III로 제대로 갖춰보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방안으로 보임. 단, DR센터하고 메인센터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재난이 발생하면 동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전시 또는 부산시와 DR센터를

분할하여 구성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서울시가 선도하고 나가는 부분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자체간 상호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시에서 종이 또는 스캔 문서들을 디지털화하여 네이버 또는 다음 등 검색 서비스 업체에 제공해서 검색엔진에 노출하고 검색을 하도록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임. 시에서 고생한 결과물을 많은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 위원〉

- 2015년 북촌 IoT 사업부터 관심을 갖게 되어 계속 지켜보게 되었는데, 최근 회의 준비가 무척 인상적이어서 수고하셨고 감사드린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 솔루션에 있어서 글로벌 부분에서의 많은 진척이 있게 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음. 최초에 북촌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기업들에게 실적을 만들어주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교차 실증까지 진행되어 굉장히 인상적이었음. 서로 페어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천력이 강할 것으로 보이고, 해외 진출의 경우 시에서 밀어준다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울관'이 조성되고 있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음.
- 와아파이포털, 캡티브포털에 영어가 표출될 때 이미지에 한글만 나오고 있음. 그런 부분들도 영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영어 자료는 무척 중요한 부분임. 지금은 번역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지만, 외국에서 서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때 외국어로 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볼때는 제대로 보이지 않음. 도시들 순위를 보면 서울시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원인이 외국어 지원이 없다는 점에 있음.
- 인터넷 초창기에 미국에서 주로 대학교 중심으로 FAQ가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 감동을 받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대만큼 FAQ가 잘되지 않고 있음. 오늘 회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챗봇으로 FAQ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또한 대시민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내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챗봇 서비스를 한다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함.
- 전자문서를 PDF로 제출하는 것은 늘 하던 방식인데, 이와 같은 파일 제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통합 모바일 전자증명서 관리 방법을 서울시 내부직원들이

개발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고 굉장한 발전이라고 믿고 있음.

- ‘약자와의 동행’ 이러한 슬로건이야 말로 디지털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근본이라고 생각함. 예전에 뉴욕에서 하는 PC 보급 정책을 접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늦게 시작했어도 정확하고 강한 슬로건으로 잘 추진하는 것 같음.

〈○○○ 위원〉

- 바르셀로나에서 서울시가 스마트시티 어워드 최고도시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당연히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바르셀로나를 떠올리는데, 서울시도 스마트 시티 어워드 제정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스마트시티 어워드 최고도시상을 수상한 것을 기점으로 스마트시티하면 서울을 떠올릴 수 있도록 어워드나 다른 행사들로 더욱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임.
- 각 부서에서 다각도로 전방위로 다양한 사업들에서 진척을 보이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최근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산업에서 투자시장이나 금융시장들이 위축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위축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임. 이렇게 심각한 여파가 오래갈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계와 금융시장이 회복된다고 해도 결실을 맺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서울시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진척을 이루고 있어 부럽다는 느낌이 있음. 이러한 위축기일수록 공공기관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고, 산업계나 스타트업의 육성, 해외 진출에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고 지원해주면 좋을 것임.

〈○○○ 위원〉

- 디지털정책관이 주택공간위원회에 배정이 되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주택 분야하고 상충해가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제가 예산결산 위원으로서 지난 16일에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결과, 앞으로의 디지털이 나가야 할 방향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생각함. 이번 예산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정책관과 재단에 대한 지적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후회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음. 앞으로의 디지털, 서울시의 디지털 정책은 예산이 있어야 훌륭한 과제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함. 앞으로 추경에서 디지털정책관과 재단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음.

〈○○○ 위원〉

- 그동안 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처음으로 참석한 시의원님이신 것 같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처음에 회의에 참석할 때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들이 하는 사업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민간기업들을 오버랩하면서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고 있음. 특히 메타버스는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최근에는 전기선박 이런 신사업 분야에서 똑같은 것을 디지털 트윈하는 사업들로 이제 시작 단계인데, 서울시는 조금 더 앞서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음.
- 특히 모바일 전자증명 확인서나 AI CCTV 등의 사업들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뒷단에서 고생하셨던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잘 추진된 사례인 것으로 보임. AI CCTV는 각 자치구별로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합한 굉장히 좋은 사례이고, 더 확대되어서 자치구와의 협업이 플랫폼으로 중앙에 모여지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
- CES 서울관을 올해도 지원해 주셨고 내년에도 계속 참석하시는데, 좋은 솔루션을 가진 개별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CES 참석을 준비하려면 보통 2억 이상 소요됨.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홍보되고, 좋은 솔루션을 가진 회사들이 서울관을 통해서 세계에 홍보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임.

〈○○○ 위원〉

- 메타버스가 현실과의 연계를 어떻게 연동을 시킬 것인가가 핵심임.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단순히 통신수단이 아니고, 데이터 제공 수단으로 전환하겠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그것을 통해서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 앞으로 안전 쪽에서도 인구가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함.
- AI CCTV 기반 사회적 약자 실종 예방시스템 또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보고 있으며, 실종 예방 상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임. 실종 발생 후 사고 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임. 치매노인들은 주거지가 파악되고 있는데, 챗봇에 '아버지가 치매이시다'라고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정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음. 실종 예방의 경우 주거지 정보를 받아서 일정 범위를 선정하면, 예를 들어 집에 계신 아버지가 치매이신데, 300m 이상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가족에게 바로 알림이 올 수 있게 먼저 선제적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종 예방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임. 혹은 객체인식의 경우 객체를 얼굴을 다 식별해야 하지만, 객체 식별을 통해서 등록된 주거지로부터 300m를 넘어갔다고 알림을 보내 경찰이 찾아가게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종 예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명예시장으로서 분기별로 정책을 계속 제안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정책에 대해서는, 'IT 신기술 거버넌스단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 두 번째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계에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들이 비투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판로를 뚫기 어렵고 소통할 수 있는 창고가 없음. 비투지라는 것이 공공조달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없음. 이런 스타트업들이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상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임.

〈○○○ 위원〉

- 바르셀로나 현장에서는 최고도시상 수상의 감동이 어마어마했음.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후보지였으며, 전쟁시 대피하는 앱으로 서울시에 승부를 걸었음.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했으며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다행히 서울시에 표가 더해져서 수상을 하게 되었다고 함. 결국 우크라이나는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는 몇 년 동안 쌓아온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봄. 이번 어워드 수상을 기점으로 세계 모든 도시들이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임. 335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그중에 6개가 올라왔고 6개 중에 왕중왕으로 선정된 것이 서울시임. 일곱 가지 카테고리 중에 가장 큰 상이 시티 어워드이며 그 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것임. 오스카에서 보면 감독상, 작품상 마지막에 받는 것처럼 서울시가 마지막에 받은 것임.
-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저와 서울시가 함께 디지털 5대 기본권을 보장하는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 우리쪽에서 초대해서 하는 것들도 많지만, 나가서 해야 하는 것들도 많을 것임. 그래서 재단에게 교차 실증도 제안을 했고, 앞으로 큰 도시와 교차 실증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음. 나중에 활성화되면 말씀드리고자 함.
- 또 하나의 트렌드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ESG임. 지금 ESG 도시 관련하여 지표가 표준화되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ESG에는 주택과 건물이 모두 들어가 있음.

지난 주에 월드뱅크와 회의를 하는 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음. ESG와 디지털이 엮어져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을 것임.

- 바르셀로나 어워드 대응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메타버스를 콘셉트로 잡아서 밀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음. 외국인들에게는 서울시가 굉장히 기술집약적인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느낌 또한 너무 기술적이었기 때문임. 조금 더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나 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 얼마 전에 사우디의 장관이 방문했었고 사우디의 '네옴시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와 교차 실증을 하고 싶어하는 등 해외 추진을 위한 기회가 많은 것 같음. 그런 기회들을 잘 잡아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임.

〈○○○ 위원〉

- 메타버스는 웹페이지, 챗봇, SNS, 카카오와 다르게 특정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점들을 차별화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임.

첫 번째 소프트웨어 구축을 한 것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가상세계에 건물 등을 구축한 단계이고, 이제 소프트 파워를 넣어야 하는 단계인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이벤트나 축제 등 차별화 포인트를 갖추어야 함. 현재 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웹으로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메타버스에서 할 일은 없을 것임.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서 즐기고, 특정한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 좋을 것임.

- AI CCTV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임. 저희 장인어른도 갑자기 아파트에서 나가자마자 없어지셔서 경찰서에 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AI CCTV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임. 다만 우려되는 것은 개인정보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임. '개인정보는 이렇게 해서 보호가 됩니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함.
- 시정에 대한 중요기록들을 메타버스 서울에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구성하여 볼

수 있도록 하면, 중요기록들이 보관된 실제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므로 중요기록 서비스를 메타버스 서울과 연계하면 좋을 것임.

- 스마트도시 솔루션·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경우, 블록체인 관련하여 네옴시티와 홍해시티가 있음. 홍해시티는 바다 위에 한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30~40조가 소요되며 가장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음. 네옴시티는 700~800조가 소요되며 오랜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임. 리야드라는 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MOU를 맺고 브라더시티를 맺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면 좋을 것임. 우리 스마트시티를 전시하고 선전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런 모든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회사와 접점이 있으니 기획이 필요할 경우 도와드릴 수 있음. CES 서울관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을 리야드에서 한번 더 추진하면 좋을 것임. 현재는 중국 아니면 우리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나갈 필요가 있음. 리야드의 경우 일일이 컨택해서 소싱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곳에서 다 알아서 추진하기를 원하므로, 서울시가 주관해서 들어가는 솔루션들을 중계하면 굉장히 신뢰성 있게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원〉

- IT 또는 AI 관점에서 볼 때, 데이터센터가 아마 예전에 구축해서 그동안 낙후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함. 클라우드로 가는 투자계획도 많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부분들이 현대화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잘 추진하실 것으로 보고 있음.
- 인공지능기술이 CCTV, 대시민 챗봇,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바로바로 서울시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고, 모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이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됨. 단,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됨. 현재 예산으로 바로 적용하면 어느 정도는 추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구축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한다면,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10배로 예산을 늘려도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 대비 많은 예산이 아니며, 명확히 조금 더 체감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기업, 스타트업들이 서울시를 플랫폼으로 해서, 관련된 사업화 추진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제가 서울 양재 AI허브 관련하여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스타트업 등 기업을 양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므로, 이런 것을 통해서 선순환으로 우리가 AI산업을 국제화할 수도 있을 것임.

- 인공지능연구자 관점에서, 최근에 외국을 여행해 보면, 예를 들면 가장 와 닿는 것이 와이파이를 어디나 나가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임.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인데, 잘 안해주는 이유가 통신사들의 비즈니스와 상관성이 있을 것임. 그러므로 통신사들과 협력하여 예를 들면 서울에 오면 외국인들이 와이파이를 어디서나 쓸 수 있다라는 정책이 감동을 주게 될 것임. 모빌리티나 물류, 교통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게 되는데, 최근 AI 기술 관련 회사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고려해보면 좋을 것임.

〈○○○ 위원〉

- 2018년도부터 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 5년 되어서, 서울시에 애정도 많고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니 굉장히 아쉬움. 그간 서울시에서 민간협력의 좋은 모델을 보여줬다고 생각함. 서울시가 워낙 추진력 있게 가고 있지만, 또 저희 민간인들의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또 그거를 잘 반영해 주시고 했던 그런 모델이 오히려 어워드감이 아닌가하고 생각함. 최고도시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림. 어스라는, 환경 관련된 비영리조직인 것 같은데, 서울시를 싱가포르와 동등하게 7대 도시로 뽑았고, 서울시는 어떤 기준의 인덱스로 평가해도 항상 3위에 랭킹 되는 좋은 도시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함.
-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1,000개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을 모으고 있음. 현재 한 800여 개 모였고 올해 지나면 1,000개가 될 것임. 대기업인 LG가 의장단으로 있기는 하지만, LG CNS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음. 이곳에서도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많고, 네옴시티에 가려고 해서, 글로벌하게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음. 한국이 여러 도시에서, 서울시도 그렇지만 BSI, U4SC, SSC 아니면 어워드에서 계속 수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네옴이 된 것임. 네옴을 알고 보면, 3분의 1만 사우디가 투자하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투자하기를 바라는 형태임. 한국이 할지 어디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많은 성과 때문이라고 생각함. 한국과 서울이 너무 기술집약적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AI를 할 때는 기술이 없거나 데이터가 없거나 하면 진도를 나갈수 없음. 많은 과정이 기술의 진화과정에서 계속 필요하고 업데이트되고, '센터도 업데이트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런 과정들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을 계속 고도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례는 아직 없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음. 제가 요즘 재래시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들, 소상공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점포가 없음. 그러므로 가상 공간에서 점포를 만들어서 집에서 자기가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만나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공공기관에서 접근하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함.
- CCTV의 경우, 시민용으로는 추진 되는 것 같은데, 내부 공무원들, 119나 112 전체가 연계되어, 내부용으로도 정보가 연계가 되어서, 지원하는 체계로 갔으면 하는 바람임.
- 민원의 경우, 2020년도에 제주도에서 민원서식 도우미가 대통령상을 받았음. 이것을 가지고 행안부가 확산사업을 하었는데, 평가를 해보니 강동구, 성동구 등 서울시 자치구들이 대부분 적용하고 있으며, 중복이 많은 상황임. 성동구는 선정해주면서 강동구는 제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시에서 민원서식 도우미, 작성 도우미, 예를 들면 출생신고, 주민발급, 장애인등록 신청서 등 민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식들을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뿌려주면 좋을 것임. 키오스크 등의 기기에서 이와 같은 서식들을 기본으로 서비스하고, 성동구, 강동구 등 각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각 자치구에 필요한 것만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임.
- 교육의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디지털재단,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모두 몇 억씩 들여서,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임.

〈○○○ 위원〉

-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메타버스, 디지털격차 해소, 모바일 전자증명서, 챗봇 하나하나 모두 월드클래스임. 하나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안 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덜 인정하는 것은 영어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함. 따라서 앞으로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연구원이 12월 초에 월드뱅크, 서울시와 3자 간에 그 LUTP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음. 리더스 인 어반 트랜스포트 플래닝(Leaders in

Urban Transport Planning)이라는 것을 담당했었는데, 그게 2019년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3년만에 재개를 했음. 그런데 저개발 국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선정하는 과정이 힘들었음.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매력적이고 방문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도시이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하고 질문이 많았음. 그런데 언어 문제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토피스를 방문했는데, 예전에는 토피스를 방문하면 한국어로 설명을 해 주고, 저희가 순차 통역을 했음. 이번에는 영어로 발표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고, 홍보가 잘 되었음. 서울시 입장에서 영어로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국문홍보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메타버스, 디지털 격차 해소, 모바일 챗봇 등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시민들이 모두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음. 따라서 시민들에게도 홍보하는 과정이 중요함. 서울시가 하나하나 잘하고 있지만, 남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임.

〈○○○ 위원〉

- IT를 추진하다 보면 잘해 놓고 나서, 조금 부족한 거 한 두개 때문에 안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음. 푸시 알림서비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푸시알림서비스를 지자체들이 쭉 받았음. 문제는 복잡해서 끄는 방법을 알수 없음. 홈페이지에 쓸수 있는 방법이 바로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찾아볼 수 없음. 푸시알림서비스를 받을 때 신청하는 방법도 쉬우면 좋을 것임. 불필요한 소리도 안나오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임.
-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몇 명 교육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주로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디지털 문맹이 몇 % 개선되었다 이렇게 성과가 표현되면 좋을 것임. 디지털 역량 강화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내 살고 있는 몇 세 이상의 분들이 이제는 어떤 것들은 다 하실 수 있다더라 이렇게 성과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임. 몇 명을 교육시키고, 이 숫자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디테일한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쓴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임.

〈○○○ 위원〉

- 서울시 디지털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해줄 것으로 생각함.
- 챗봇 서비스는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교류가 일어나는 부분임. 앞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음성으로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사용자들이 노안이 있어서 일일이 키보드를 칠 수 없으며, 이미 '지니야'에 익숙해져 있음. 또한 홈쇼핑을 통해서 ARS나 음성인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음. 각종 SNS, 홈 지니, ARS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인식이 문자보다 더 앞서가는 환경이 되었고, 게다가 너무 잘되어 있음. 예를 들면, 카톡 문자 보낼 때 일단 음성부터 하는 게 습관이 될 정도로 진짜 접근 방법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챗봇뿐만 아니라 민원 응대에 있어서 음성을 우선으로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주 하는 질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먼저 말하고 싶어함.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스타일을 반영한 챗봇 같은 것을 만들면 훨씬 더 빠르고 시민 서비스도 좋아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저는 서울시에서 근무하였고 교통정보과장으로 퇴직을 했음. 그때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디지털정책관에 권하고 싶음. 우리나라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특히 R&D도 많이 되고 있는데 실증할 기회가 너무 없음. 민간지원 팀을 만들어서 개발된 기술을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예를 들면 CCTV가 있으면, CCTV를 설치해서 어떤 기술을 할 수 있는 홀 하나만 민간들에게 제공해서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철거하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음. 과거에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싶어하고, 지금은 규제샌드박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음. 예산도 많이 안 들고 민간입장에서는 '기회만 달라'는 부분이 너무 많으므로 민간기술개발지원팀(가칭)을 하나 만들어서, 원-원 하는 정책이 필요함. 중앙정부에서는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는 서울시 차원에서, 팀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많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면 좋을 것임.

〈○○○ 위원〉

- 정말 수고하셨는데, 최고도시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서울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음.
- 저는 아무래도 법률 쪽을 보다 보니, 예를 들어 챗봇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발전시킬 때 나중에 이용자들의 정보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수집해서, 트레이닝에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함. 그와 같이 활용할 때는 개인정보들이 섞여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계획이면, 미리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음.

- 푸시알림 관련해서는, ‘어떻게 끄는지 난해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정보는 소위 스팸규제 대상이 아님. 앞으로는 문화정보 같은 것도 이렇게 알림을 보낼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광고성 정보인지의 영역에서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음. 기존에는 푸시알림 대상이 재난정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했던 반면에, 문화정보 제공 등으로 일반적인 스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임. 재난정보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따라오는 규정 때문에 오는 것인데, 최근 실종자 정보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그와 같은 정보들 때문에 ‘끄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들었을 수 있었을 것임.
- 메타버스하고 사실 여러 가지 접목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임.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성장 과정을 보면, 유저도 있고 개발자가 그 생태계 시장 안에서 같이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것처럼, 메타버스 안에서도 일반유저이면서 동시에 그 유저가 콘텐츠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동시에 제공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것임. 스마트도시 플랫폼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서식 같은 것도, 예를 들어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그 안에서도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 플랫폼이자 유저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복지기획관〉

- 저희 복지실은 최근에 노인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갑자기 어르신들의 학력 수준들이 올라가고 있음. 65세부터 노인이 되는데, 교육을 많이 받은 베이비붐세대들이 65세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임. 이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인계층에 들어온 액티브 시니어 분들이 은퇴하고, 여유 시간이 생겼을때, 이분들의 역량을 기존의 패시브 시니어 분들을 돌봐주는 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새로운 정책 고민 중의 하나임.
- 저희가 복지시설에서 각종 인공지능이나, 센서 관련된 돌봄서비스 정책들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언급하였음. 어떤 특정한 어르신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본인의 생활실태나 개인 생체정보나 이런 것들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지금 현재는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이 데이터를 그냥 업체 서버에서 갖고 있음.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강남구청 서버에 데이터가 쌓이게 하고 있음.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업체가 서비스를 종료했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가져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임.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무원이 관심이 없으니 그냥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임.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제공한 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의 예산으로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데이터라면, 그 공공의 예산을 투입한 기관에서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 소유된 데이터들이 모여서 또 다른 빅데이터 2차적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소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대표님께서 한번 제안을 주셨는데, 여기 지금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울시에 AI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종합적으로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복지 분야 여러 가지 프로젝트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교통이나 환경 분야가 들어와서 그 데이터들이 서울시에서 관리되고 소유된 상태에서, 2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조를 잘 설계하고 데이터의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문을 주었음. 이 건은 복지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디지털재단과 디지털정책관실하고 수석님께서, 서울시 전체의 관점에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희망복지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문제가 많은 상황임. 3년 동안 2,00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결론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 결국, 150만 건의 데이터를 수동으로 다시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함. 수동으로 다시 입력하면 입력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그런 말이 안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 전산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데이터가 정확한, 원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고 지속적으로 디지털이 마이그레이션 되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연계가 되는 게 핵심인데, 한 번도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접해보지 못했음. 관련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좋겠음.

〈디지털수석〉

- 교육과 관련하여, 아마 오늘 시장님이 여기 못 오신 이유가 서울런 4050을 발표함. 기자회견이 지금 끝났는데,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 관련, 교육만이 아니라 중·

장년층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디지털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조되었음. 교육 분야에서도 어떻게 중·장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음. 전체적으로 디지털정책관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데이터, 공공데이터를 오픈하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오픈하고 민간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만들자는 게 핵심내용임. 데이터 전체를 어떻게 오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음. 그렇게 되기 위해 클라우드 퍼스트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클라우드화를 할 것인지, 보안에 대한 문제도 있음.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오픈하는데, 오픈하기 위해서는 잘 모아야 되는 것임. 디지털정책관에서 내년에 디지털플랫폼서울을 구축하여, 서울시 데이터 다 모아서 내년에 서비스하기 위한 ISP를 현재 진행 중임. 물론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오픈해서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 데이터 웨어링에 대한 ISP를 진행하고 있음.

- 서울시 정책에서 다른 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미래교통과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 버스가 청계천에서 오픈되었는데, 테슬라가 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뭘 하느냐 라는 의문이 있겠지만, 현대자동차랑 추진하면서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임. 자율주행 자체버스의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앞서가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이 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것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주택정책과에서 진행된, 주택에서도 디지털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디지털정책관과 다른 국들이 함께 디지털이 활용되게 할 수 있는, 결국은 시민들이 잘 사용하게 만드는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을 가져가는 기조로 추진하고 있음. 내년에도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임기가 끝나시더라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디지털정책관〉

- 마지막까지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에 임기가 끝나시더라도 항상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기억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음. 평생위원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임. 위원님들의 고견을 디지털정책관에서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실국의 사업에서라도 진행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음.

〈위원장〉

- 올해 3,4차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다음 회의에서 피드백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오랜기간 동안 스마트시티 분야의 대가 분들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은 상당히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함. 이상으로 2022년 제4차 스마트도시위원회를 종료하겠음.